

인경 빠진 경판조사 '반쪽' 우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인)가 진행하는 조선시대 목판 일제조사 사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까지 전국 110개 사찰이 소장한 조선시대 목판 2만 7000여 점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정작 중요한 인경과 지정 연구 등 활용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사찰에 소장돼 있는 목판은 대부분 16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각 판본에는 고려대장경 이후 사찰로 전수돼 온 조선시대 인쇄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보존가치가 크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런 가치를 살리기 위해 3년간 문화재청으로부터 8억 원의 지원 받아 경판 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찰 경판 조사에서는 올해 충청도·전라도·인천·경기 지역 사찰 50곳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부산·울산·경남·강원 지역 사찰 24곳, 2016년에는 대구·경북·서울지역 사찰 36곳을 연차적으로 조

사할 방침이다. 전국사찰 경판 일제조사 사업은 목판의 인문학적 조사와 판종별 목록화, 수종 분석, 실측, 소장처 보존 관리 현황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목판을 세척하고 보존상태를 확인한다. 또 판종 및 판수를 확인한 이후 개별 목판을 디지털 촬영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2016년까지 일제 조사사업

실측 현황 파악·디지털 촬영 등 연구 기초 자료 마련

예산문제 '인경' 누락... "실제 인쇄여부 파악해야"

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 하에 디지털·적외선 촬영을 진행하지만 인쇄 가능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경'은 빠져 있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그동안 방치돼 훼손이 심각한 경판에 대한 현황 파악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자료 활용 및 기초자료를 마련

하기 위해서는 '인경'을 해야 한다"며 "여러 목판들을 종류와 내용을 면밀히 밝히고 실제 인쇄가 되는지 여부와 그 인쇄물을 토대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인경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정인 스님은 "피상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심화된 연구를 위해서는 인경이 꼭 필요하다"며 "목판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쇄물을 모아 보고서를 발간하면 후세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안상재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주무관은 "현재 진행 예정인 사업은 수종분석 정도로 문화재가 얼마나 흩어져 있고, 훼손됐는지를 파악하는 의미가 크다"

며 "인경 부분은 뚜렷한 계획이 없다. 향후 해제나 인경 부분도 진행돼야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 문제는 사찰 경판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연구사업의 축소로 이어졌다.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전국사찰 소장 경판 지정 조사 연구는 연구개발(R&D)사업으로 축소돼 예산이 삭감됐다.

1980년대 소장 경판을 조사한 후 문화재 지정연구 사업을 진행 중인 박상국 한국문화연구원장은 "중복 사업으로 돼 R&D사업으로 떨어져 나갔다. 이번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연계가 돼 종별 연구와 자료 조사, 비교 관리 등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현재 사찰이 소장한 경판 360종 중 200종 이상이 국가 지정 문화재 대상감"이라며 "가치가 높은 만큼 당국에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등에 나서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추진위원회는 2월 20일 조계사 대웅전 앞 무대에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선언식'을 개최했다. 순례 동참 꽃꽂기를 마친 대중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분열·대립 넘어 '화쟁'으로"

조계종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선언식... 범종단·사회 확대 추진

진영 논리와 사회 갈등을 타파하고 화쟁사상을 알리기 위해 길을 나설 것을 알리는 선언식이 열렸다.

조계종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추진위원회는 2월 20일 조계사 대웅전 앞 무대에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도신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경 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 비롯해 각계 인사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자비와 화쟁은 서로 떼어질 수 없는 불이(不二)의 관계"라면서 "자비의 마음을 가졌다면 갈등과 다툼부터 멀어야 한다. 그러기에 화쟁의 길을 나서는 것은 가장 큰 자비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화쟁 순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는 자비와 화쟁의 큰 발걸음이며 한반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고통의 현장을 어루만지고 원용무애의 정신으로 손을 맞잡는 대장정"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끝없이 이어져 한반도가 마침내 공존과 화해의 기운이 넘쳐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100일 순례 선언 동참자들은 3.1 정신으로 화쟁의 길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선언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과 조계 당국에 요청했다. 신종일 기자

중앙신도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이춘호 EBS 이사장 지역연 환경연합 공동대표 등 각계 인사 10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00일동안 우리는 제주에서 판문점까지 나라 안 구석구석에서 펼쳐진 갈등과 화해, 아픔과 희망의 현장을 찾아 갈 것"이라며 "그 길에서 소중한 우리 이웃들을 만나, 대화하고 격려하며

각 종단 불교계 지도자 참석

선언엔 이웃종교인들도 동참

3월 2일 한라산 천고제 시작

6월 10일 광화문 광장서 회향

우리 서로가 조화롭게 연결된 이웃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례의 길에서 해원상생의 정신을 모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진영 논리를 잠재우고 천심인 민심이 우리 사회의 공론으로 자리잡도록 유도하겠다. 그리하여 우리의 바람대로 국민 통합의 길이 열리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본격적인 순례는 3월 2일 제주 한라산부터 이뤄진다. 순례 추진위는 2일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

서 천고제를 지내고 9일까지 제주 일대를 순례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후에는 △3월10~23일 부산을 산경남 △3월24~30일 대구경북 △3월31일~4월13일 광주전남 △4월14~20일 전북 △4월21~27일 충북 △4월28일~5월4일 대전충남 △5월5~11일 강원 △5월12~18일 경기 남부 △5월19~25일 인천 △5월26일~6월1일 경기북부 △6월2~10일 서울 순으로 진행된다. 순례의 최종 회향은 6월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번 100일 순례의 특징은 지역의 갈등 현상이나 미담이 있는 곳을 찾아가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화쟁의 방법을 천착한다는 데 있다.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과 대안학교 학생, 불교단체 활동가 등 10여명이 상설 순례단으로 참여해 순례를 진행하며 지역 단위의 순례 조직들과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실천적 방안이 올해 결사추진본부가 목표인 '붓다로 살자'와 '화쟁 100일 순례'라면서 "이번 순례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서로 보듬고 이해해 진실로 상생하는 문화의 기운이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981호 INDEX

- 시방세계 불교학연구회 겨울 워크숍 5 종합 2·3
- 중앙승가대 6대 총장 원행 스님 태고종 100만인 서명 운동 94년 계획 기념사업 준비 '붓불'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사자,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동촛대규격 (cm)	코끼리·사자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 中 41×21	小 35×21
청동촛대규격 (cm)	거북	大 25.8×34	中 21.5×29	小 18.5×23	小 15.5×18	
	용	大 28×40	中 24×32	小 20×24	小 17×20	
청동촛대규격 (cm)	연화	大 28×40	中 22×14	小 20×13	小 17×12	
청동촛대규격 (cm)	방형·원형(2종)	中 7×9×14.5		小 6×6×12		

※ 한국장인이 직접 만드는 제품입니다.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일 걸립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사 TEL 02)2004-8216